

높은 품질의 수돗물 시민에게 공급

익산시,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익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주력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맑은 물 수요에 대한 욕구 증대와 99% 상수도 보급률에 발맞추기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익산지역 1878km에 이르는 급배수관의 관리가 어려워 유속 불균형으로 인한 적수 발생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읍면지역 12개소, 동지역 31개소의 상수관망을 블록화해 전자 통신기술을 접목하게 된다. 또한 시는 다수의 급수관을 인공과 유량 유속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로 연결 후 유입과 유출지점에 유량계,

압력계 등을 설치해 실시간 수돗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돗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과 수돗물 유속을 향상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했으며 급수계 블록화 구축과 신형수계 11개 블록을 구축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409억2900만 원을 투입해 블록시스템 31개소를 구축하고 노후관 74km를 교체하는 한편 14.8km구간에 대해서는 관직경을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73%인 유수율을 최대 80%까지 개선할 수 있게 돼 3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10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맑은 물 수요에 대한 욕구 증대와 99% 상수도 보급률에 발맞추기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보다 높은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주얼리 산업 품격 높인다

정현울 익산시장, 익산체인·제이스타일 방문 현장행정

주얼리산업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예물 주얼리는 구매 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한 합리적인 주얼리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패션주얼리는 2~30만 원대로 웰리티가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익산에 주얼리 제조업체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마케팅활동을 통해 고품질 제품개발을 통해 온라인, 홈쇼핑, 해외 수출 등 다각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익산시(시장 정현울)는 10일 제3산업단지 내 귀금속 제조업체인 익산체인과 제이스타일을 방문하여 주얼리 산업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날 구자인 익산체인 대표는 "익산 주얼리산업단지 내 익산주얼리집적산업센터에 2016년 7월에 입주하여 매출액 약 21%이상 증가되었고, 주얼리 체인 세공기술 및 디자인팅 기술로 인해 무제한 자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OEM 방식으로 간접 수출에서 18년도에는 직접 수출로 변경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하여 글로벌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강동호 제이스타일 부장은 "실버 및 액세서리 전문점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울 시장은 "주얼리 제조에 많은 부분이 기계화 되었지만 미적으로 섬세한 공정은 전통 수공업제조방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익산주얼리 산업에 품격을 높여 달라"고 전했다. (주)익산체인은 2015년~2017년까지 천만송이 국화축제, 익산서동축제에 참가했으며 2016년 서울역 사랑의 자선바자회, 2017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가 등을 통해 익산 주얼리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산업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제이스타일은 2017년 최초 설립하여 작년 기준 매출액 5억 5천만원, 고용인원 17명으로 자체디자이너 및 대학 공모전 등을 통해 많은 디자인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헤지스 주얼리 디자인 출시 및 상품을 런칭했고, 추후 연예인 협찬 전문 스타일 브랜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향기나는 나들이 사업 호응 익산시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경진 황의성)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특화사업인 향기나는 나들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향기나는 나들이 사업은 주거공간이 좁고 낙후되어 집에서 목욕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몸어르신,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세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이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진되며 여성 어르신들은 목욕장(남중동)에서 남성 어르신들은 온성장(중앙동)에서 진행됐다. 또한 거동 불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방문해 목욕과 세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욕나들이 지원대상자인 양모 씨(85, 여)는 "집이 좁아서 혼자 씻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목욕탕에 데려가 세신까지 해주고 시원한 음료도 지원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다며 정말 남중동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황의성 공동위원장은 "향기나는 나들이 사업으로 행복해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작은 힘이라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더욱 더 사랑 가득, 향기 가득한 남중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영양지도·식중독 예방교육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총 6회에 걸쳐 6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장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품영양표시(표) 읽는 방법, 전염병·식중독 예방을 위한 감염병 원인 및 증상 알기, 손 씻기

장비를 통한 체질,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건강한 치아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건소의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아동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쉬운 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교육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

방법을 지킴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보건소의 보건·위생교육 및 지역아동센터의 필수교육을 병행·운영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양질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3개 기관과의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지역 내 관계 공공기관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일 군산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군산시 전복도를 비롯해 전라북도경상통상진흥원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3월 31일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내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군산시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해고 근로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 A씨는 "부담하고 억울하게 한국지엠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지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Festival 2018, 파이팅 코리아 내고향 페스티벌'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축제 박람회 퍼포먼스 부문 대상 수상

군산시 대표 축제이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해가고 있는 시간여행축제가 2018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Festival 2018, 파이팅 코리아 내고향 페스티벌(이하 K-페스티벌)에서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가 홍보마케팅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군산시는 축제의 차별화와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혁신적이고 우수한 축제 콘텐츠로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근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군산만의 독특한 축제의 특징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군산관광 퀴즈풀이 등을 진행하며 지역특산품을 상품으로 제공해 방문객들의 직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관공자원을 알리는 효과를 이뤘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K-페스티벌에서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은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축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시간여행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지역 내 관계 공공기관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일 군산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군산시 전복도를 비롯해 전라북도경상통상진흥원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3월 31일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내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군산시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해고 근로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 A씨는 "부담하고 억울하게 한국지엠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동료들이 심리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문용득 시 지역경제과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 결정을 하면서 비정규직, 협력업체 등 많은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재취업 상담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올해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산=김정훈 기자